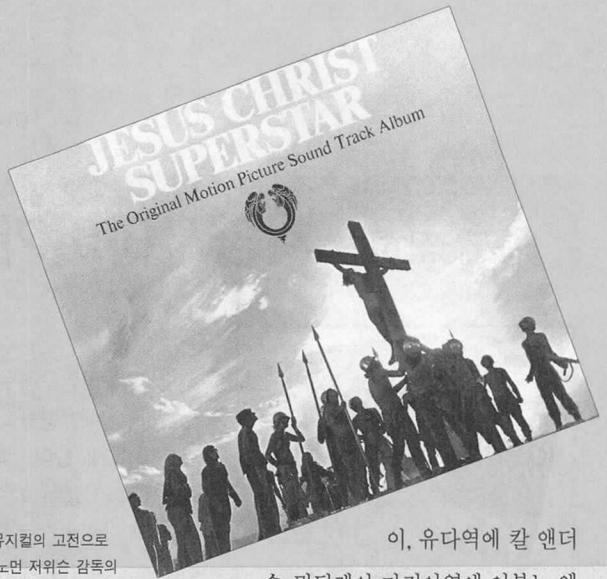


## 비탄과 자기혐오를 넘어 위대한 긍정으로

이인성의 《낮선 시간 속으로》와

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<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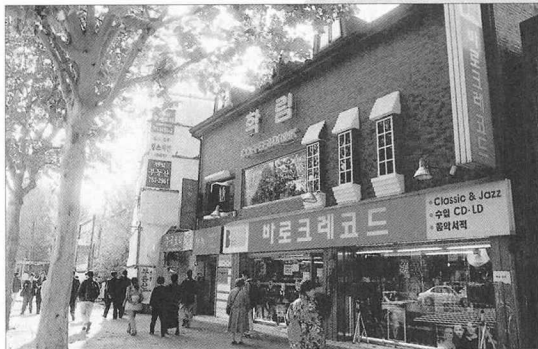
1974년 아버지의 죽음으로 의가사 제대한 한 젊은이는  
주점에서 독주를 마시며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린다.  
자신앞에 닥친 운명의 갈림길에서 그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?  
그 때 허름한 주점에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 흘렀다.  
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던 예수가 어느덧 “아버지, 당신의 손에  
제 영혼을 맡깁니다.”라고 노래하고 있었다.



이까지 록뮤지컬의 고전으로  
공임없이 판매되는 노먼 저위슨 감독의  
73년 영화의 사운드트랙 앨범.

이, 유다역에 칼 앤더  
슨, 막달레아 마리아역에 이븐스 엘  
리먼이 참여했다. 1974년 여름, 의가사 제대한 한  
국의 젊은이가 대학로 뒷골목 어두운 주점에서  
독주를 마시며 들었던 음반은 바로 이 두번째 사  
운드트랙 앨범일 것이다.

1974년 여름, 그는 대학로 문리대 교문  
을 빠져나와 맞은편 골목 쪽으로 접어  
든다. 자주 가던 ‘학림다방’이 있지만,  
그는 외면하고 골목 안 왼쪽 이층 건물  
에 붙어 있는 ‘술과 음악·지하실’ 이  
라는 조그만 아크릴 간판 아래로 들어  
간다. 그곳에서 그는 밀실로 안내된다.



새로 개축된 대학로 ‘학림다방’ 인근. 맞은편 문리대 패거리들이  
항상 들르던 이 다방을 피해 《낮선 시간 속으로》의 주인공은  
‘지하실’이란 주점으로 간다.

밀실에서 만난 사내의 물음, “요즘엔 ‘학림’에  
잘 안 들린다며?” 그의 대답, “그놈의 클래식이지  
겨워져서요. 아는 얼굴 자꾸 만나기도 싫어요.” 그  
가 위약적으로 술을 시켜 혼자 마시는 동안, 노  
래는 <세노야>를 거쳐 <딩동댕 지난 여름>으로  
이어진다. 그리고 신문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읽  
던 그는 완강히 그 생각을 뿌리치고 젊은 주인에  
게 ‘Jesus Christ Superstar’라고 쓴 메모지를  
건넨다. “이거 좀 틀어 주려우? 세째면 둘째 곡.”  
바로 뮤지컬 <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>의  
열여섯번째 노래 <겻세마네-나는 말하고 싶네  
(Gethsemane-I Only Want To Say)>다.

### 74년 대학로 한 귀퉁이에서 들리던 노래

뮤지컬 <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>의 작사가  
인 팀 라이스와 작곡가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 
만난 것은 1965년 옥스퍼드대학에서였다. 이들은  
곧 음악을 계속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첫 작

품 <우리 같은 사람>을 만들지만 실패하고 만다.  
하지만 이들은 굴하지 않고 1968년 두번째 작  
품 <조셉>을 만든 후, 1970년 예수의 마지막 일주  
일을 2막에 담은 뮤지컬 <지저스 크라이스트 슈  
퍼스타>를 완성한다. 23살의 천재 뮤지컬 작곡가  
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.

이 작품은 록음악을 도입해 그때까지 뮤지컬  
에 대한 일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. 1970  
년 유다역에 머레이 헤드, 예수역으로 록그룹 딥  
퍼플의 이언 길란, 막달레아 마리아역으로 이븐  
스 엘리먼이 참여한 첫번째 앨범은 많은 레코드  
사가 출반을 거부한 앨범으로 유명하다.

두번째 앨범은 런던 웨스트엔드와 뉴욕 브로  
드웨이 극장가의 성공을 바탕으로 1973년 노먼  
저위슨 감독이 이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면서 출  
반한 사운드트랙 앨범이다. 예수역에 테드 니레

### 낮선 시간을 받아들이는 위대한 긍정

12명의 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가 홀로  
겻세마네 언덕에 앉아 독배한다. “이 잔을 되돌  
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... 나는 이 독배를 맛  
보고 싶지 않다.”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의 목소  
리를 따라 잔잔히 흐르던 통기타 소리는 예수의  
심리상태가 변하게 되자, 급격하게 소용돌이친  
다. 예수는 울부짖듯이 소리친다. “왜 내가 죽어  
야 하는가?”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 예수  
는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. “좋다. 나는 죽겠다. 나  
를 피 흘리게 하라, 나를 때려라, 나를 죽여라. 나  
를 데려가라,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.”

웨버의 뮤지컬처럼 우리시대의 고전이 된 이  
인성의 《낮선 시간 속으로》에서 이 노래는 예수  
처럼 배신을 겪은 주인공의 비탄과 분노를 대신  
설명한다. 이 배신과 자기혐오에서 자신을 구하  
는 과정이 바로 이 소설이 나아가는 방향이다.  
따라서 이 뮤지컬의, “아버지, 당신의 손에 제 영  
혼을 맡깁니다”는 예수의 마지막 대사처럼 이  
소설의 주인공이 “상처를 통해, 마침내 우리는  
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”라며 그 낮선 시  
간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우리는 위대한 긍정으  
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

- 김연수기자